

고가 전세 대출도 옥죄다... SGI서울보증 '보증제한' 검토

금융당국, 가계부채관리 TF
주금공·HUG 전세대출 최대 5억
SGI서울보증, 별도의 한도 없어
대출 제한선 9억 혹은 15억 거론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속 전세대출은 예외적용 했지만 SGI서울보증보험이 고가 전세대출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내년 전세대출을 옥죄기 위한 각종 규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에서 SGI서울보증의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TF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 보증기관 등이 포함됐다.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고액 전세



SGI서울보증보험이 고가 전세대출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1

대출은 막히게 된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은 정부 산하의 주택금융공사(주금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민간 업체인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3곳의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 은행은 전세금을 떼이더라도 이틀보

증기관으로부터 9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어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내줄 수 있다.

주금공과 HUG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수도권은 최대 5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4억원까지 전세가격 상한이 정해

져 있다. 하지만 SGI서울보증은 별도의 한도가 없어 고가의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강남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고가의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SGI서울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됐지만 이번 검토 끝에 결국 SGI서울보증이 전세가격 상한선을 정하면 고가의 전세대출을 받게 불가능해진다.

업계에선 SGI서울보증의 대출 제한선에 대해 전세가 기준 '9억원' 혹은 '15억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 전세 세입자는 자금 여유가 있음에도 전세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고가 전세 기준은 SGI서울보증이 자체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갑작스런 대출 회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며 "시행 시기나 재계약 증액분에 대한 보증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계부채 강화 방안에서 서민들 보호로 전세대출 규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를 내년 전세대출 규제 시행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보유한 전세대출 잔액은 총 122조971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6.9% 늘어났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거의 절반이 전세자금대출이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금융 당국이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로 전세대출 규제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내년부터 전세대출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의 대출 한과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개막
4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개막한 제63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롯데프레시&델리 부스를 찾아 창업 정보 등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불법행위 정황 업체에 또 '특혜성 수의계약'

>> 1면 '軍 이동식방호벽'서 계속

감사원의 감사 중에도 이동식방호벽 시설공사의 관리감독 책임기관인 국방부 시설분부는 사용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했고, 설계도와 다른 자재를 선정한 건설사와 관리기술자에 부실별점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 "육군총장이 형사고발해라" 권고... 31사단은 또 수의계약

지난 4월에 나온 감사원의 최종 의견에 따르면 감사원은 육군 참모총장에게 불법행위의 정황이 드러난 A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육군 31사단의 관계자는 올해 '북구예비

군훈련장 사격장 도비탄 방지(방호벽)', '고층 예비군훈련장 피탄지 방호벽 공사(방호벽)'을 발주 예정일을 1일의 간격을 두며 분할해 또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이는 2000만원 이하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감사원은 이동식 방호벽은 복수의 경쟁업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을 해야한다고 권고했지만, 군 당국은 여전히 편법을 쓴 셈이다.

더욱이 31사단 관계자는 A사로부터 특허침해를 당한 B사의 대표에게 사업 견적 등 제반 사항을 물어 확인했음에도 입찰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만큼 이동식 방호벽을 놓고 '군 내에 '이권집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육군은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육군은 관계자인 A중령에게 주의장을 발부했고, 징계처분 대상인 B소령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제심 청구 결과에 따라 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8월말 12사단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상황인 것이 확인됐다.

복수의 총기 및 사격전문가들은 "도비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탄자를 한곳으로 보여주는 구조물과 사격장 방호덮개 시설이 필요한데, 일반 휴으로 채워지는 급조방어진지 격인 이동식 방호벽을 설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군 당의 소요과약과 예산산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n@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친환경·미래산업 스타트업 발굴 나서

산은-포스코-포스텍, 업무협약

산업은행과 포스코, 포항공과대학(포스텍)이 친환경·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산업은행은 포스코, 포스텍과 친환경·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친환경·미래산업 분야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일조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산업은행은 포스코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공동 조성하고 포스텍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 향후 5년간 1000억원을 직접 투자할 계획이다. 또 각 기관은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해외 진출, 대기업과 사업 연계 등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인 'IMP(Idea Market Place)'를 10년 이상 운영하며 아이디어 공모 7442건, 창업보육 442팀, 투자 132개사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벤처플랫폼' 전략을 수립, 벤처펀드와 벤처밸리를 조성해 벤처 생태계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신성장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텍은 더타임즈가 발표하는 소규모 대학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3위, 아시아 1위에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유일 3세대,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보유하는 등 첨단 기초연구 인프라를 보유했으며 제넥신, 압타머사이언스 등 유수의 벤처기업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창업의 요람으로 불린다.

/양성운 기자 ysw@